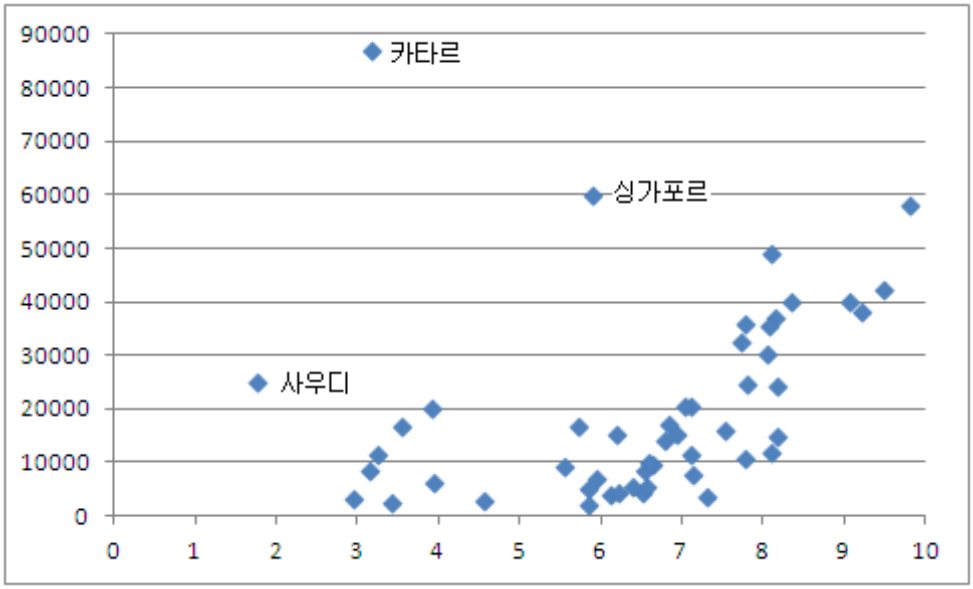
Global 금융 위기 기간 동안의 민주주의 지수 변화

■ **2011년 말,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하 EIU)에서 발표한 2011년 민주주의 지표(Index of Democracy)[1]에 따르면 혁명에 성공한 아랍 국가들의 민주주의 지표 지수는 상승한 반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의 지수는 하락하였음.**

- 혁명에 성공한 후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이 진행 중인 튀니지의 민주주의 지수는 지난해에 비해 53계단 상승한 92위를 기록하였고, 마찬가지로 독재자를 타도한 리비아와 이집트의 순위 역시 크게 상승하였음.
- 반면 스페인이나 그리스와 같은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 위기로 인해 민주주의 지수가 크게 하락하였고, 다른 서유럽 국가 역시 지수가 하락하거나 정체하였음.
- 2011년 EIU 민주주의 지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전년도에 비해 48개국에서 그 수치가 하락하였고, 41개국은 상승하였지만,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주의 지수 평균치가 감소하였음.[2]

그림 1. 1인당 GNI(PPP) 대비 민주주의 지수

(단위: $)



자료: World Bank, EIU

1) 비슷한 자료로 Freedom House의 *Freedom in the World*, The Wall Street Journal과 Heritage 재단의 *Index of Economic Freedom*, 정치학 분야의 *Polity data series* 등이 있음.

2) 유럽, 미주대륙,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는 민주주의 지표 수치 평균이 하락하였으나,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의 큰 상승폭으로 전체 수치 평균은 2010년 5.46에서 2011년 5.49로 조금 상승하였음.

■ **EIU의 민주주의 지표는 △선거 과정과 정치 다원성[3] △시민의 자유와 인권[4] △정부의 기능[5] △시민의 정치 참여[6] △정치 문화[7]와 관련된 총 60개의 문항에 대한 각 국가에서의 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0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함.**

- 이 기준에 따라 각 국의 정치체제를 완전 민주제(full democracy, 8-10점), 불완전 민주제(flawed democracy, 6-7.9점), 혼합 정치체제(hybrid regime, 4-5.9점), 권위주의 정치체제(authoritarian regime, 4점 이하)로 구분함.
  - ㅇ 2011년 조사 대상 167개 국 중 완전 민주주의 국가와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는 각각 25개와 53개이며, 혼합 정치체제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는 37개, 52개임.
  - ㅇ 완전 민주주의 국가의 대부분은 OECD 국가이며 이 중 아시아 국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불과하고, 중남미 2개 국, 아프리카 1개 국이 있음.

■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성향이 강한 서유럽에서 민주주의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로존 위기에 따른 정책 자주권 훼손 △금융경제관료(technocrats)의 부상과 그들에 의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인 대체 현상 △국가 기관의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신뢰 하락 △극단주의 정치세력의 등장 △반이민정책 지지자 증가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 증가 등을 꼽을 수 있음.**

-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프랑스,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이 완전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하였음.
- 이태리와 그리스에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금융경제관료로 대체되었음.
- 일부 국가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서 선출된 정치인이 아닌 IMF, 유럽중앙은행 등의 외부 전문가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 이민자를 적대시하는 극단주의 정치세력이 집권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지지세를 넓히고 있음.

(백석훈 연구원)

---

3) 선거 과정과 정치 다원성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선거, 정치적 자유 등과 관련됨.
4) 시민의 자유와 인권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을 의미함.
5) 정부의 기능이란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함을 의미함.
6)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시민의 무관심과 정치과정에의 불참이라고 할 정도로 시민의 참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음.
7) 우수한 정치 문화의 한 예로 민주적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자가 선거의 결과를 수용하여 권력 교체가 원활한 국가를 생각할 수 있음.